

국내외 광융합 기술·발전방향 진단한다

26일 코엑스서 ‘2019 국제 광융합산업 발전포럼’ 개최

해외마케팅센터·국내 수출 희망 기업간 정보 공유 주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외 광 융합 기술 동향과 미래 발전방향을 진단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18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2019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의 일환으로 ‘2019 국제 광융합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발전포럼은 국·내외 관련 분야 연사 초청을 통한 미래 유망기술 세미나와 한국광산업진흥회 해외마케팅센터와 국내기업 간 정보 공유 및 진출전략 협의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광융합 기술 세미나에서는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및 유기 전자, 플라스마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 연구소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우베 보겔 부국장(Dr. Uwe Vogel)의 ‘OLED-On-Silicon 기술 기반의 광학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인도의 차세대 ICT 유망기업인 Aritel社 라케쉬 쿠마르 최고 기술경영자의 ‘인도 광통신 시장 진출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국제 연구기관으로 독일전역 40여개 지역에 58개의 개별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세계 여러 연구기관들과 기술혁신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인도 Aritel社는 인도 최대

의 통신회사중 하나로 현지 정부와 현지 기간망 통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홀로그래프 개발사업에 대한 기술동향 및 사업화 방안’(강훈중 선임연구원)과 ‘국·내외 스마트조명 시장 및 기술동향’(장두원 차장/필룩스) 소개가 예정돼 있어 광융합관련 시장의 기술 동향 및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는 한국광산업진흥회의 해외마케팅센터장들의 ‘현지 경제 전

망 및 광융합 산업 시장동향’과 ‘현지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통해 포럼 참여자들과 해외 전문가의 정보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이재형 회장은 “국내 광융합산업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광융합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남신보, 광양시 소상공인 성과보고대회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광양시청에서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 컨설팅 수행실적을 조망하는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최형천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지역경제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광양시는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 4월부터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제작 무료 교육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모두’ 툴을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3개 지역(수원·양주·전주)에 이어 하반기 교육으로, 29일부터 7개 지역(광주·대전·부산·대구·인천·청주·춘천)에서 진행된다. 중기중앙회는 네이버 전문강사와 함께 이러한 네이버 서비스와 연계한 홈페이지 제작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자사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2천500만명 돌파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천50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는 2천506만1천26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2016년 1월 처음으로 2천만명을 돌파했고, 2년 7개월만인 지난해 8월에는 2천400만명을 넘어섰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작년 8월 말 기준 2천406만여명에서 11개월 만에 100만명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달 9만932명 증가해 2천326만8천991명에 이르렀다.

정부가 작년부터 무주택자 위주의 개편된 청약제도를 시행하면서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통장 가입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청약 당첨이 곧 시세차익 보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

휘발윳값 4주 만에 하락 전환

최근 3주 연속 오르던 전국 휘발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주간 단위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0.5원 하락한 1.493.5원을 기록했다.

전국 경유 판매가격도 2주 연속 상승하던 전주와 달리 이번주에 1.0원 하락한 1.351.6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쌌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0.6원 하락한 1.588.1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94.6원 높았다.

대구지역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1.462.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휘발유 기준 최저가 상표는 알뜰유유소 1.467.7원, 최고가 상표는 SK에너지 1.507.8원이었다. 경유는 알뜰유유소가 1.326.2원으로 가장 싸고 SK에너지가 1.366.8원으로 가장 비쌌다.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중동산 석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8.6달러로 전주보다 0.3달러 올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중동지역 긴장 지속 등 상승 요인과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하락 요인이 혼재해 약보합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어! 내렸네...’ 최근 3주 연속 오르던 전국 휘발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1.493.14원을 기록했다.

연금복권 판매율 5년째 30% 안팎 그쳐

연금복권의 판매율이 5년째 30% 안팎에 머물면서 인기가 시들한 모습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복권 발행액 3천276억원 가운데 1천40억원여치가 판매돼 31.7%의 판매율을 기록했다.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2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복권으로, 복권 상품 다양화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2011년 7월에 도입됐다.

복권시장의 90% 이상을 로또 복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복권상품 다양화와 당첨금의 장기간 분할 지급이 가능한 장점 등을 이유로 연금복권의 발행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출시 초기인 2012년을 제외하고 발행액 대비 판매 실적이 30% 안팎에 그치며 저조한 실정이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연금복권 총 발행액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매년 3천276억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총 판매액은 출시 초반인 2012년 2천146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3년 1천224억원, 2014년 973억원, 2015년 955억원으로 빠르게 줄었다. 이후에도 2016년 981억원, 2017년 1천4억원으로 소폭 늘는 데 그쳤다.

특히 연금복권 발행액의 3분의 2가량이 매년 인쇄식으로 발행되지만, 판매액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800억원대 수준에 그쳤다.

로또복권 (제872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2 4 30 32 33 43 / 보너스 29		
1등	1,262,705,579	6개 숫자 일치
2등	73,200,324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668,591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8월 전국 아파트 3만2천가구 입주 예정

전남 2천58가구...입주여건 악화 지속

이달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구가 3만2천여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은 52개 단지 총 3만2천162가구에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민간아파트가 2만7천413가구로 85.2%, 공공아파트가 4천749가구로 14.8%를 차지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0개 단지·2만1천64가구, 나머지 지방에 22개 단지·1만1천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달과 비교해 수도권은 1천521가구 증가한 것이지만, 지방은 5천686가구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은 경기 1만6천719가구, 서울 4천345가구, 전남 2천58가구, 부산 1천409가구, 경남 1천265가구, 충남 1천260가구, 대전 1천201가구, 세종 1천111가구, 강원 1천87가구 등이다. 전체 물량의 52.0%가 경기도에 집중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역산업 체제와 신규 공급물량 누적 등의 영향으로 2015년 이후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서 입주 물량 감소세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9.3으로 지난달보다 8.4포인트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다시 60선을 기록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달 지역별 HOSI 전망치는 세종(100.0)이 100선, 서울(90.2)이 90선을 기록했으며 대전(86.3)·대구(81.4)가 80선, 광주(78.2)·인천(78.1)·경북(73.6)이 70선, 이 밖의 대부분 지역이 50~60선으로 조사됐다. 제주(47.3)는 유일하게 40선을 기록했다.

7월 HOSI 실적치는 69.5로, 전달 실적치(75.3)보다 5.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전국의 입주율은 74.4%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광주의 자랑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현재 모집 과정

매월훈련수당 4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훈련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상담문의 및 접수를 서두르십시오!
카드발급 4주이상 소요!!

(취업예정자훈련)
훈련비 전액국비 + 자격취득 + 취업알선

냉동공조유지관리

취득가능자격증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기능사

훈련기간
2019. 09. 25 ~ 2020. 03. 20(6개월)

(취업예정자훈련)
훈련비 전액국비 + 자격취득 + 취업알선

양식조리기능사(미론+실기)

취득가능자격증
양식조리기능사

훈련기간
2019. 09. 23 ~ 2019. 11. 22(2개월)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